

광주일고 올해 2관왕 주역 투수 정해영·외야수 박시원

“내년에도 꼭 우승 합작 할겁니다”

KIA 1차 지명 후보들...광주야구인의 밤 행사 최우수선수상

정해영 컨트롤 장점·박시원 호타준족...“내년 시즌 기대돼요”

2018년은 광주일고가 '전통의 야구 명문' 자존심을 살린 한 해였다.

지난 5월 31일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대구고를 10-2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광주일고는 광주 대표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일구면서 '2관왕'에 올랐다.

'주장' 김창평은 2019 신인드래프트에서 SK 와이번스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 입단을 앞두고 있고, 유망형도 2라운드에서 한화 이글스의 선택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

내년 시즌 전망도 밝다. 올 시즌 전국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당찬 2학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해영과 박시원은 투타에서 광주일고의 2019시즌을 이끌 든든한 두 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열린 '2018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에서 광주일고의 2연패를 이룬 주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내년 시즌 팀의 에이스로 역할을 해야 할 정해영은 "올 시즌 안 다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한 시즌을 같이 보낸 (박)시원리와 동료, 선배들 모두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내년 시즌에는 3학년으로 애들 잘 끌고 가려고 한다. 올해처럼 안 다치고 내 역할에 충실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발빠른 강건 외야수 박시원은 "올 한해

우승도 하고, 실력이 많이 는 것 같다. 올해 경험을 쌓아서 다음 시즌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팀 우승에 또 역할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청소년대표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팀의 주축 선수로 우승을 함께 견뎠던 두 사람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KIA 타이거즈가 주목하는 1차 지명 후보들이다.

정해영과 박시원은 각각 '컨트롤'과 '스피드'로 2019시즌 어필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열심히 하는 선수"라며 자신을 소개한 정해영은 "장점은 컨트롤이다. 슬라이더가 주무기이고, 체인지업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스피드가 생각 보다 많이 안 올라와서 스피드를 올리는 데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화이팅이 넘치고 잘 웃는다. 유쾌하다"며 웃음을 터트린 박시원은 "호타준족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달리기를 좀 더 확실하게 장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 또 중견수로 수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수비, 타격, 달리기 모두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음은 벌써 2019시즌으로 가 있는 두 사람. 또 다른 우승 현장과 프로 무대를 꿈꾸는 정해영과 박시원은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우승 하자. 같이 하자!"며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 전국체전 우승 주역인 정해영(왼쪽)과 박시원이 최근 열린 2018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뒤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농구장에서 새해맞이

올해도 '농구영신' 매치...31일 밤 11시 LG-kt 격돌

농구장에서 2019년 새해를 맞는 '농구영신' 매치가 올해에도 펼쳐진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송년 매치'다.

KBL은 오는 31일 오후 11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2019년 새해를 팬과 함께 맞이하는 '농구영신' 매치를 개최한다. 올해 '농구영신' 매치의 주인공은 창원 LG와 부산 kt다.

2016년부터 시작된 송년 매치는 밤 10시에 시작해 경기 종료 후에 새해를

맞지만 올해는 경기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추면서 경기 도중에 새해를 맞게 된다.

올해 '농구영신' 매치는 하프타임 때 새해맞이 타종행사가 펼쳐지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DJ 라라'의 공연도 펼쳐진다.

다불어 창원실내체육관을 찾는 팬들에게 추위를 통해 돼지저금통(2천19개), 세탁기, 청소기,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도 나눠준다. /연합뉴스



2017년 '농구영신' 매치 장면. (KBL 제공)

타자 전념하는 2019시즌 오타니 성적은?

팔꿈치 수술로 투타 겸업 포기...호른 35 vs 15 등 엇갈린 전망

2018년 투타 겸업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화제를 모은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내년에는 타격에만 전념한다.

오타니는 10월 초 오른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마운드에 서지 않고, 타자로만 나서기로 했다. 타자에 전념할 오타니의 타격 성적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을 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4일 미국 현지 기자 3명에게 2019년 오타니의 예상 성적을 묻고, 기사화했다. 에인절스 담당 기자 3명은 오타니를 향해 엇갈린 전망을 했다.

오타니는 올해 타자로 104경기에 나서서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을 올렸다.

시즌 초 오타니의 실력에 의문을 품었던 뉴욕 포스트의 조지 킹 기사는 이제는

'타자 오타니'를 절대 지지한다. 킹 기사는 "경험을 쌓은 오타니가 내년엔 홈런 35개는 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타니가 4월 28일 뉴욕양키스와 경기에서 루이스 세베리노의 시속 156km짜리 빠른 공을 우월 홈런을 친 장면을 보고 오타니를 신뢰하게 됐다"고 밝히며 "양키스전 홈런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더 성장할 오타니의 모습을 기대했다.

오펜시카운티 레지스터의 제프 플래처 기자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플래처 기자는 130경기 출전, 타율 0.275, 31홈런, 80타점의 구체적인 전망을 했다.

플래처 기자는 "오타니가 5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타자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매일 오타니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데이의 데이비드 레넌 기사는 다소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레넌 기사는 "투타 겸업을 하는 선수니까, 길게 보며 신중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며 "81경기 출전도 너무 잦은 출장이다. 15홈런 정도 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8년 활약 후 이적하는 골드슈미트의 감사 작별 편지

'애리조나 고마워요' 신문 전면광고 눈길

미국프로야구(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떠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한 강타자 폴 골드슈미트(31)가 신문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감동한 작별 편지를 남겼다.

골드슈미트는 현지시간 23일 애리조나 유력지인 애리조나 리퍼블릭 일요판에 전면 광고를 싣고 구단과 팬, 그리고 동료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동시에 건넸다.

2011년 애리조나에서 데뷔해 올해까지 8년을 뒀 골드슈미트는 통산 타율 0.297, 홈런 209개, 타점 710개를 올렸다. 2013년부터 6년 내리 올스타전에 출전한 애리조나의 간판타자였다.

애리조나는 이달 초 유망주 3명과 신인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골드슈미트를 세인트루이스로 보냈다.

'애리조나 고마워요'로 시작하는 고별 편지에서 골드슈미트는 "꿈이 현실로 바뀌는 걸 처음으로 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곳이 있다. 내겐 애리조나가 그런 곳"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하기 참 힘들다"고 뜨거운 감정을 토해냈다.

골드슈미트는 그간 기회를 준 구단과 늘 성원해준 팬,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은 코치·트레이너, 그리고 소중한 우정과 추억을 공유한 동료에게 차례로 사의를 표하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천적'인 골드슈미트가 내셔널리그 서



골드슈미트가 지역 신문에 낸 전면 광고.

부지구에서 중부지구로 옮기면서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한결 편하게 2019시즌을 맞이한다.

골드슈미트는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 0.423(26타수 11안타), 장타율 0.885, 홈런 3개를 기록할 정도로 무적 강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2월 26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26일(수) 전남 보성 오봉산 (324m)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 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월 5일(토·일) 제주도 한라산 등반, 봉선동 롯데마트와 4월 저녁 21:10, 진월동 식사재마트와 21:20, 영주체육관 21:30, 한국병원앞 21:40, 문예회관 후문 21:50, 비엔날레 주차장 22: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백암산악회 1월 6일(일) 진도 여귀산, 월드컵주차장 07:00, 문예후문 07:20, 북부경찰서 07:30, 문흥현대 07:40 *다음카페 광주백암산악회 ☎ 010 2425 4300, 010 3604 8589

▲광주자연보전동맹사회 1월 13일(일) 대전 계룡산 (845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몰버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동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광주청록산악회 1월 16일(수) 전남 완도 상항봉 (219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망 김진수(670420-XXXXXXX) *최후주소 : 광주시광양읍 서북로 22(월성리) *등락지점지 : 경복 칠곡군 가산면 하하 4길 48의 3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정리관 1관 아쿠아맨, 마약왕 2관 마약왕, 도어락 3관 아쿠아맨 4관 스윙키즈, 범블비 5관 스윙키즈, 범블비, 도어락 6관 아쿠아맨 9관 보헤미안 랍소디, 도어락 7관 씨네케틀, 스윙키즈, 스피아디텐, 국가부도의 날 8관 씨네케틀, 마약왕, 그린치, 광구는 못말려, 포켓몬스터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